<나의 삶 나의 하나님>

노년에 다시 핀 믿음

세월이 유수와 같다더니. 어느새 호호 할머니가 되어 버렸다. 무엇을 하고 살았나 싶기도 하구… 처녀 적 나는 동네에서 극성스럽다할 만큼 열심인 믿음 이였다.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과 더불어 30년을 살다보니 바짝 마른 심지처럼 신앙이 볼품없이 되버리고 말았다. 세상일에 분주하고 자식들을 뒷바라지 하다보니 이미 반백을 넘어선 즈음이라 이제사 하나님 앞에 나가자니 송구하고 낙오자가 된 나를 어디다 둘 곳이 없다. 이제는 자식들도 장성하고 며느리까지 봤으니 좀 쉬고 싶은 생각이 들 무렵 그러니까 바로 결혼 3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달리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저녁 무렵 장남 내외가 건너왔다. "아버님, 어머님 결혼 축하 드립니다" 웃으며 들어 오는 저들을 보며 정말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려는데, 아이들은 무슨 선물꾸러미를 들고 오더니 우리 앞에 조심스레 놓았다. 선물은 정성스레 포장되었다. "어서 풀어보세요. 저희가 의논 끝에 마련한 겁니다.. 어서요" 선물을 풀어본 순간 아, 그런데 그 속에는 나의 어두운 마음을 지르기라도 하듯 붉은 양피지의 성경, 찬송가가 들어 있는 것이었다. 그 위에 얹혀져 있는 작은 카드를 열었다. [날마다 쌓은 가정 제단에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럴 수가! 뭉클한 감동이 가슴 속 깊이서 올라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려니까, 장남이 입을 열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이제 세상은 졸업하시고 하나님 일에 재등록하시죠"하면서 너털웃음을 웃었다. 그날 이후 귀한 선물이 계기가 되어 쉬지 않고 곤고한 남편과 더불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그래, 자식들을 봐서라도 신앙 생활을 잘해야지" 남편은 젊은 때와는 달리 주일만큼은 으레 교회 가는 날로 알고 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나도 이젠 다소 여유있는 맘으로 교회에 나가 무릎을 꿇는다. 이 모두가 우리 결혼 기념일에 가정 제단의 기도를 선물한 아들 내외의 정성이 가져온 엄청난 변화다. 처음엔 가정 제단이 며칠이나 갈꼬 했는데 나의 생각을 뒤엎고 아들 내외는 아침뿐만 아니라 저녁까지 예배를 드린단다. 무척 힘들고 부담스럽던 것이 이젠 빠뜨리면 허전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라 한다. 아침에는 다들 바쁘니까 간단하게 성경 말씀을 두어 줄 일고 찬송을 한 장 부른다는데, 10분 정도면 끝나는 간단한 기도외지만 그 10분이 하루를 살아가는 그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다고 간증한다.'주님 오늘 하루도 주장하시고 인도하소서'라는 기도로 아들 가족은 늘 하루를 시작한단다. 그리고 저녁이면 무사히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다시 가정으로 보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고 잔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 들으며 마음이 든든함을 느끼는 게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때마다 우리 두 늙은이를 위한 기도 또한 뜨겁지 않으리! 이젠 우리 식구들도 모이면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역시 오늘도 침침한 눈이지만 대충 집안 일을 끝내고 성경을 펼쳤다. 붙과 몇 절밖에 볼 수 없지만 세상일을 잊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시간, 잠언서 어느 구절에 붉은 줄을 긋는 기쁨이야말로 그 무엇에 비할 수 있으리!

김군자(영등포구 신길7동)

교회목표	'2001년 교회생활:"QT하는 갈보리교인"	교회생활지침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 인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 3권 31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1년8월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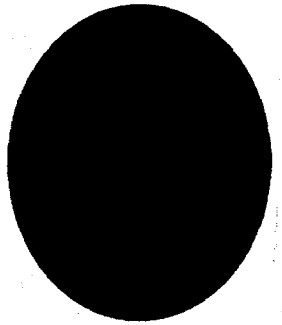
☎520-9464/021-292-1639.✉10 Burleigh St(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있는 일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 지고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와 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삶을 누릴수 있게 모든걸 갖게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걸 누릴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주셨다.
구한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맘속에 진작에 표현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 주셨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 *

아래 동그라미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

a. 보이지 않으므로 아무것도 없다
b.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무언가 있다

분명히 있음에도 우리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 11:1)

주 일 예 배

영 광 송 Gloria	"Calvary" 1.3절:다같이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36장	다 같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23(시편 98)	
*신 앙 고 백 .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336장	다 같 이
기 도 Prayer		송정섭 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마태 20:1-16(신 32)	인 도 자
부부성가대 Couple Choir		부부성가대
설 교 Sermon	"하나님의 사람은(1)"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327장 (마지막절은일어서서)	다 같 이
*헌 금 기 도 Offertory Prayer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좋으신 하나님'	다 같 이
*위탁의 말씀 Encouragement		인 도 자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8월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수요기도	헌 금 위 원	Tea Time	주 일 안 내
5	변지웅	최재학	김종건.지찬영	변지웅.안원희	최정숙.손길숙
12	**송정섭**	**한 건**	**박영태.정의령**	**이경석.이선우**	**김교섭.정희자**
19	신경화	한은영	박정자.	이영권.이지형.	김종건.박정자
26	신선숙	김교섭	박일영.임혜자	인치혁.최병학	빅영태.정의령

'2001년 교회표어
"주일에서 매일중심신앙으로"
<실천 사항> 1년 성경완독
매일 QT(Quiet Time) 생활화

<등록규정>
*3주간 예배,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주일예배 12:00	수요예배 7:30 pm	금요새벽기도: 6:00	학생.청년부: 토요 4:00

교 회 소 식

1.성경완독 1년
*그 동안 완독하신 성경완독표는 봉헌함에 넣어주십시오.
사도행전: 1명. 로마서.고전(1): 1명
2.교사 월례모임: 목요일 저녁 7:00.교회
3.오늘 예배 후 식사를 나누며 교제를 갖습니다(Hall)
4.이번주 수요예배 시간변경
*본교회 행사 관계로 이번주에는 낮 12시에 모입니다
5.교우소식
*한 건 집사: 당분간 미국에서 생활하기 위해 떠납니다(15일 출국). 하나님와 승리로우신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8월의 교회력

	교 회 력	모임 및 행사
5일		구역예배(10일)
12일	광복기념주일	식사교제.
19일		
26일	이삭줍기 봉헌	교사기도회(31일)

****

◆소설 "대지"의 작가 펄벅 여사의 고백

"나는 내 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딸은 내게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요. 우리 가족은 모두 동작이 느린 사람을 가만히 두고보지 못하는 급한 성격입니다. 물론 나도 둔한 사람에 대해 참을성이 없는 가족의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런 내가 정신이 박약한 딸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힘든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으로서 평등하고 인간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내게 분명히 가르쳐준 건 다름 아닌 내 딸이었습니다.

만약 내게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나보다 능력이 못한 사람을 참을 수 없어 하는, 몹시 거만한 사람이 되어 그런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딸은 나에게 참다운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주었습니다